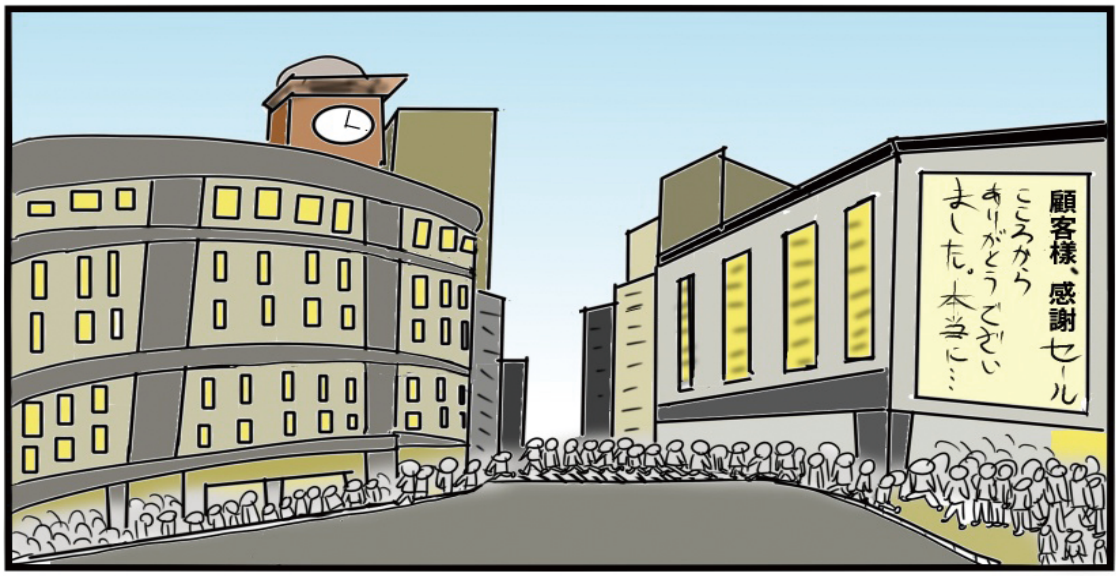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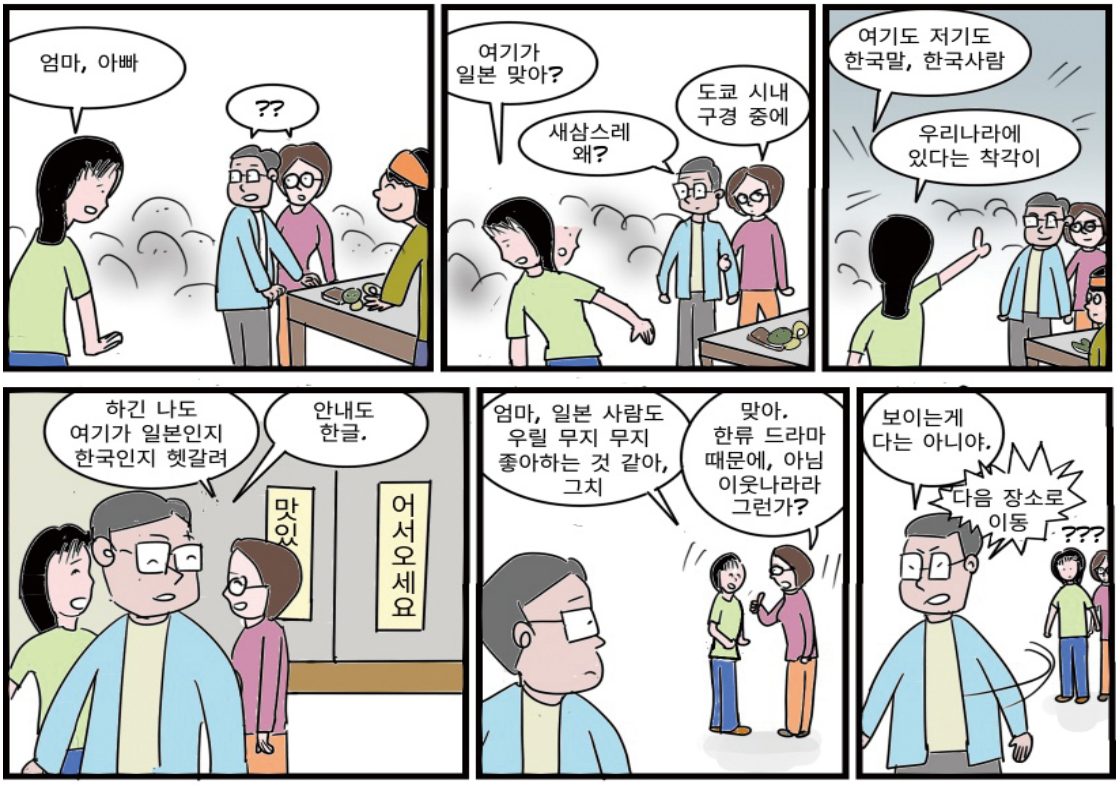
**기억해야 할 KIHA의 역사 : 1966년 진폐환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금 지급 요구**

일제강점기 징용으로 수많은 조선인 광산 노무, 귀국 후 16,000명 진폐 후유증
일본정부, 일본인 진폐환자는 보상금 지급, 그러나 한국인 징용자는 거부

**KIHA, 노동청에 국제관례와 한국 보상금 기준에 따라 일본 정부가 1,20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교섭 요청**



갑자기 큰소리를, 아빠 화났어?
글쎄다.
겉만 보라고 여행 온게 아닌데. 어디가서 이야길 좀 해야--
뷰가 좋네.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아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고, 흔히 애증의 관계라고 해.
이웃나라 끼리는 애증관계가 많아.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와 튀르키예 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런데
맞아. 독도를 또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두 나라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 불행했던 역사를 넘어 미래로 함께 가자고 선언했지만 풀리지 않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1998.10.8)
관계가 좀 좋아지려 하면 일본의 역사왜곡, 혐한 발언 등으로 오히려 악화 되었거든.
생각해 보니 화가 나네.
이웃이라는 이유로 많이도 당했지.
흥분 하지마.
맞아. 특히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는 조선인이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 가는 등 혹독한 환경에 내몰렸는데
憲兵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 광산도 그중 하난데,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해방후 살아 돌아온 뒤에는
진폐증으로 시달렸지만 일본은 외면했어. 그래서 KIHA가 당시
우리 일본인만 보상금 지급 데스.
끌고 갈 땐 같은 일본사람 이라며
접근금지
진폐환자가 16,000명임을 확인 (1966.2.25), 노동청에 이들이 보상금을 받도록 일본 정부와 교섭하라고 요청했어.
우리도 못한걸, 역시 KIHA
국제관례와 한국 보상금 기준에 따라 1,200만 달러
일본에 요구액
KIHA
앞으로 두 나라가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한국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아빠 설명. 생큐
당신 말에 완전공감